

「卷頭言」

水道界의 一大轉換을 바라며

韓國水道協會 會長 郭永駟

1973年 9月 全國水道人의 熱望아래 우리 韓國水道協會가 創立된지 23년이 되었다.

協會創立 當時 우리나라 上水道는 1日 總 生産量 300萬屯에 그 普及率 40%에도 未達하였으나 그동안 政府當局의 先進化 政策과 우리 水道人들의 努力으로 現在는 1日 總 生産量 2000萬屯을 達成하였고 그 普及率도 全國平均 82%를 上廻하였으며 6大 都市平均 普及率은 98.3% (서울, 濟州 99.9%)로서, 創立當時에 比하면 生産量이 約 7倍라는 驚異的인 伸張을 보았으나 우리 協會는 創立當時 水準에서 큰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水道事業者가 協會의 主軸이 되어야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多幸히 지난 7月 11日 環境部와 水道協會 主催로 열렸던 全國水道人 懇談會에서 水道協會 活性化 方案이 深度있게 論議되었고 특히 6大 都市 上水道本部長들이 協會에 積極參與하기로 하고 그 推進을 위한 小委員會가 構成되었으므로 머지않아 水道協會가 再誕生하게 될것을 期待하며 會長으로서 水道人 여러분과 함께 이를 慶賀하는 바이다.

21世紀를 目前에 둔 現 視點에서 우리 水道事業을 보다 先進化하고 世界化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水道協會가 活性化되어야 한다. 協會가 伸張된 國力에 걸맞는 協會로 育成되려면 그동안 傍觀者的인 立場에 있던 水道事業者가 能動的으로 協會에 參與하고 組職이 水道事業者 中心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協會의 財政이 確立되어야 하며 水道行政 當局의 積極的인 協助가 뒤따라야 한다.

過去에도 이와 類似한 協會의 活性化 方案이 論議된 바 있으나 行政部處間의 異見等 으로 무산된 일이 여러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龍頭蛇尾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水道界 發展을 위한 一大轉換期가 되도록 全 水道界가 渾然一體가 되어 모든 力量을 協會에 結集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